

합격수기

임정묵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도 일반행정(전국) 직렬에 최종 합격한 행정학과 임정묵입니다. 저는 약 3년 반 가량의 수험생활 중 2년 반 이상을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에서 공부하면서 수험 생활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본 합격수기는 제가 공부한 방식이나 루틴 등 일반적인 것들을 다루기 보다는 제가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합격수기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의 운영에 힘 써주신 임현 교수님, 그리고 그 동안 원활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항상 실원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주셨던 실장님들과 조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행정학과 공공인재원 소개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은 안암역 4번출구 앞 정문약국 건물 4,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재원은 행정학과 교수님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수험 생활 중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재원 입실시험에 선발되어 인재원 실원이 되면 개인 열람실을 사용할 수 있고 5층에 위치한 스터디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코로나 기간에 수험생활을 해서 학교 열람실이나 스터디룸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는데, 인재원의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었습니다. 수험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수험 과목에 해당하는 인터넷 강의 수강시 일정 비율로 강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시험 기간에는 PSAT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무료로 인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험 공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습니다. 더불어 2차 시험기간에는 고시동과는 별개로 2차 과목 교수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점심 및 강평을 받을 수 있어 실전 감각을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2차 기간에 인재원 내에서 실원들끼리 스터디를 조직하여 공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공부할 수 있어서 스터디원 세명이 올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3. 학습 루틴

저는 고시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부 루틴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재원은 학교 도서관과 달리 개관 및 폐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기만의 공부 습관을 만드는데 더욱 편리합니다. 제 경우에는 보통 오전에 공부가 잘 되고 저녁으로 갈수록 공부가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먹고 3시간 정도만 공부한 후 집에 가는 루틴을 세웠습니다. 특히 아침에 제가 제일 일찍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환기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준비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1차 준비

기간에는 오전에 언어논리를 풀고 운동을 다녀온 뒤 점심을 먹고 자료해석과 상황판단을 풀고 오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PSAT 스테디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헌법 공부를 했습니다. 3순환 기간 중에는 오전에 스테디를 하나 하고 운동을 한 뒤 점심을 먹고 스테디를 하나 더 하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는 경제학을, 저녁에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가면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이 합격에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4. 스테디의 활용

앞서 간략히 언급했다시피, 저는 스테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가을에는 부족한 2차 과목 답안 작성과 관련한 스테디를, 그리고 겨울에는 PSAT 스테디를, 3순환 기간에는 행정법 스테디와 해당 진도에 맞는 스테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저는 행정법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년 내내 행정법을 놓지 않았습니다. 3순환 기간에도 행정법 답안지를 매일 50점씩 쓰면서 암기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이상적인 답안지를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재원 내에도 PSAT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아 이 분들과 스테디를 조직해서 서로 잘하는 점을 공유하면서 점수를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PSAT을 잘 하지 못하는 유형의 수험생이었는데, 덕분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서대로 69.1 → 74.4 → 76.6 → 75.8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순환 기간의 경우에는 인재원 내에서 합격생 첨삭을 받았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100점씩 답안을 작성하였는데 채점해주는 분께서 꾸준히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공부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5. 기타 생활습관

저는 굉장히 '오늘 뭐 먹지?' 고민하는 것을 싫어해서 최대한 저의 선택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숙을 하면서 아침 저녁을 해결했고 점심은 산학관에서 학식을 먹었습니다. 고시촌에서 공부할 때는 고시식당에서 대부분의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쉬었는데, 이 기간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는 등 알차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확실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시 일주일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시생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살피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식단과 체중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수험생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요인을 잘 파악하시고 이를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놓는 것 역시 긴 수험생활 기간에 꼭 필요합니다.

6. 나가며

2차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 스테디 장을 하면서 공공인재원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준비한 합격생들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역시 그래도 공공인재원이 편

한 곳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래 저래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심란해지면서 공부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붕 뜬 느낌이 드는 것이 싫어서 저는 웬만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이 잘 부합하는 곳이었고, 덕분에 수험 기간동안 많은 도움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만약 행정학과 학우분들 중 고시에 생각이 있다면 꼭 공공인재원을 지원해 보시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입학에 예정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행정학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시에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합격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